‘가슴 뭉클한 감동, 전법 포교로 이어가자’









5조

삼조 스님 - 묵언으로 대중에게 마음만을 전하겠다.

각만 스님 - 부처님 열반하신 지 2600여 년이 흘렀지만 우리가 부처님 땅을 걸음으로써 부처님 시선으로 농민들, 서민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 앞으로 경전읽고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법본 스님 - 인도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과연 ‘내가 그들의 환영을 이만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라고 되물었다. 40여 일 동안 꽃과 박수를 받은 그 값어치를 한국으로 돌아가서 포교 전법하는데 사용하겠다.

보성 스님 - 순례하면서 늘 감사했고 행복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수행하면서 살겠다. 감사하다.

시관 스님 - 더불어 함께 해서 감사했고, 더불어 함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더불어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도봉 스님 - 인도순례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안일하고 방일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이번 성지순례, 도보순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살겠다.

능원 스님 - 템플스테이나 사찰음식, 명상 프로그램을 한 차원 높여 21세기 문화를 선도하여야 한다. 우리 문화가 전세계로 나가야 불교중흥이 되지 않겠나. 화두는 ‘그럼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

각일 스님 - 나 자신을 찾아가는 좋은 시간 여행이었던 것 같다. 저에게 꿈과 희망,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6조

묘수 스님 - 참담했던 것은 비구니 승단에 대한 것이다. 한국불교 비구니가 가장 활성화됐을 때 수행했고, 스승도 많았다. 사부대중 중 가장 참담해질 것은 비구니 승단이 아닐까는 걱정을 했다.

지해 스님 -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

현조 스님 - 제 불찰로 다리를 다쳐 중간에 함께 못 한 것을 대중에 참회드린다. 마음공부를 아주 많이 한 것 같다. 한국에 가서 주지 소임을 열심히 살면서 포교를 열심히 하겠다.

원해 스님 - 우리가 걸었던 이 인연으로 인도에도 생명 존중과 불교 중흥이, 붓다가 길을 걷듯 길 위에서 부처님의 법이 다시 피어났으면 좋겠다.

정혜 스님 - 사부대중의,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휠체어를 타고라도 ‘끝까지 함께 하자’ 는 회주스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끝까지 걸을 수 있었다. ‘불교중흥’ 하면 막연했다. 그런데 사부대중과 정진을 하면서 ‘한국불교 중흥이 세계불교도 중흥시킬 수 있는 발걸음이구나’ 는 확신이 들었다.

해인 스님 - 저도 정말 원 없이 걸었고, 원 없이 기도했고, 또 원 없이 행복했다. 이제 돌아가면 제 자리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포교를 열심히 하겠다.

수문 스님 -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같이 정진하면서 걸었던 대중의 힘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더 열심히 마무리 잘 짓도록 노력하겠다.

원준 스님 - 아름다운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향기로운 꽃을 뿌려주며 환호하는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축원을 올렸다. “모든 생명의 인연에 감사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 사바하” 훌륭한 공양 게송이면서 축원문이었다.

선해 스님 - ‘상월결사’ 수행공동체가 유유자적하게 계시던 스님들을, 한송이 한송이 꽃이 모여서 결집된 것처럼 만들었다. 그 법 향기를 찾아서 우리는 걸음을 걸었다. 그 걸음 속에서 불교 미래의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

도연 스님 - 8년 동안 발원하여,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시골인데도 이렇게 수행하는 불자가 있구나’ 는 감동을 느꼈다. 상월결사의 4대 결사 정신과 108원력문, 새벽에 했던 발원문을 갖고 제 남은 생에 열심히 정진하겠다.

덕진 스님 - 현지인들을 보며 사람들이 환경에 상관없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롯이 그것으로 인해 수행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었다.

7조

이태경 - 먼저 부처님 나라 인도에서 스님들과 동행할 수 있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순례단을 반겨주는 인도인들의 환영은 큰 힘이 되었고 순례가 갖는 의미 수행정진 · 불교중흥 · 국민화합 · 세계평화의 4대 결사를 마음에 되새겼다.

성계순 - 걸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우리 7조 조장님 마음과 같다. 저는 매 순간마다 환희심에 진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린 것 같다.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간다.

김정숙 - 43일 동안 걷고 난 제 느낌은 한국불교 중흥의 씨앗이 싹 들 것이라는 믿음과 환희심이다. 감사했다.

백금선 - 묵언으로 대중에게 마음만을 전하겠다.

강덕순 - 저는 인도에 와서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를 보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선한 눈빛과 아름다운 미소, 우리나라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주 감동적이었다. 인도 오기를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느끼고 있다.

정유림 - 26살에 인도순례에 동참한 것이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다. 이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항상 베풀면서 젊은 불자들에게 포교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 7조에서 봉사하시고 챙겨주신 조장님과 묵묵히 든든하게 지켜주신 거사님들께 감사드린다.

8조

정충래 - 지난 4년간 있었던 일련의 순례 과정에 참여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다짐했던 것들을 ‘우리 불교가 달라졌어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회향에 힘쓰겠다.

주윤식 - 저는 인도 오기 전부터 ‘인도 불교가 왜 망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었고, 이번에 기회로 삼았다. 사부대중이 과연 부처님 법대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성찰의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하는 바람이다.

이영규 -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한국의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회향하기도 전인데 인도에서 벤치마킹하여 순례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 릴레이 붐이 한국에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형규 - 신문사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센터를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심이 있고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길러내어 그 토대로 다문화 포교에 나서겠다. 함께해서 영광이었으며, 저 자신도 3년간 준비했던 부분들이 원만하게 회향돼 기쁘게 생각한다.

이규민 - 부처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데를 다니셨다. ‘나는 어떤 삶을 이후에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민중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살아야겠다’ 고 다짐했다.

조석주 - 묵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다. 상월결사의 뜻에 맞게끔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원력을 가지고 행동 하겠다.

노덕현 기자가 노덕현 기자에게 묻다

‘한국불교 할 수 있다. 전법 합시다!’

Q. 인도에서 불교는?

A. 흔히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졌다, 힌두교에 흡수되었다고 배웠지만 그렇지 않았다. 불가촉천민들에게는 계급과 신분의 한계를 넘는 희망이었고, 불교공동체는 삶의 터전이었다. 가진 것이 적지만 순례단을 환영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에서 빈자일등의 정성이 느껴졌고, 낮은 계급 출신임에도 불자로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에서 한국불자의 한명으로 배울 점 또한 많았다.

Q 순례단을 곁에서 보며 느낀 점은?

A. 70이 넘은 고령의 스님들부터, 20대의 청년 불자들까지 모두 똑같이 정진했다.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선했다. 순례단이 방일할 때는 회주스님의 경책이 있었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가 있었다.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잘 알기에 오히려 미소로 대하며 도반이 되었다.

Q. 사부대중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A. 43일간 1167km의 인도순례가 가능한 것은 사부대중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이다. 불교중흥의 길 또한 같다. 사부대중이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스승이자 지도자인 회주 자승 스님부터 순례단, 뒷바라지를 하는 지원단, 그리고 언론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단까지 한마음이었다. 한국불교도 마찬가지다.

Q. 43일간 어려운 점은?

A. 낯선 환경이라는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은 신심과 원력을 세우는 동기가 되었다. 보도는 하지 못했지만, 부상자도 있었고, 행선이 어려운 이들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끝내 이겨냈다. 간절함이 있으면 모든 역경은 이겨낼 수 있고 하나의 기회가 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고통도, 환희의 순간도 그렇기에, 그때 그때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마음이 흐트러 질 때면 경책하는 스승과 함께 하는 도반들이 있고, 스스로 간절함이 있으면 못 이겨낼 것이 없다.

Q. 취재에서 느낀 점은?

A. 불교언론의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포교사라는 사명도 지니고 있다. 한국불교를 중흥하는 위대한 불사의 참여자로서 하나라도 더 현장의 분위기와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밤잠을 줄여가며 열과 성을 다했지만, 마지막 귀국길에서는 아쉬움도 있었다. 상월결사는 인도순례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결사 정신의 실천을 위해 불교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각오를 세웠다.

한국=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의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걷다’
⑥ 카필라바스투부터 조계사까지



Bhagavan Budh ki karuna ho!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리셨다!

네팔 룸비니에서 인도 쉬라바스티까지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잊혀진 순례길을 세상에 드러낸 순례단은 3월 16일도 행선을 계속했다.

농촌인만큼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순박하다. 땔감인 소똥을 지고 가는 여성,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염소떼, 그리고 누렇게 익은 밀밭 등등에서 부처님 당시의 인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행선을 거듭하던 순례단이 멈추는 때가 있다. 바로 이런 마을주민들이 공양을 올릴 때다. 행선을 시작한 순례단의 첫 휴식장소였던 바자하 마을에서는 새벽 3시부터 분주함이 느껴졌다. 이른 새벽부터 순례단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이들이었다.

순례는 과거의 허물어진 탑이나 건물을 보기보다 그 흔적 속에 담긴 인간 붓다의 고뇌를 느끼고 그 발자취를 따라 가르침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그 순수한 목적이 이뤄진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큰 원을 세워 실천하는 정진만이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감동으로 전환된다.

순례의 공덕을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회향하고자 하는 순례단은 이들의 공양을 겸허하게 받았다.

3월 17일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희망으로 변한 곳을 다시 한번 찾았다. 새벽 2시부터 행선을 시작한 순례단은 데바루아 마을에 당도했다. 이날 순례단의 쉼터는 다른 곳이었지만, 마을 주민이었던 마누스 쿠마르 고톰 씨의 초대로 그의 진료소 앞으로 옮겨졌다. 힌두교 내에서 불가촉천민이었던 마누스 쿠마르 고톰 씨는 불교로 개종한 이후 신분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어려서 공부를 잘했지만 계급의 한계를 느꼈던 그는 델리에서 인도불교소사이어티를 만나 개종했다. 카스트 내에서는 불가촉천민을 의미하는 성을 지녀 어디가든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개종하며 부처님과 같은 고톰(고타마)으로 바꾸고 새 기회를 얻었다.

새벽 환영 나온 인도불자
‘부처님 가피내렸다’ 연호
印정부 佛성지 개발 성과

그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처럼 데바루아 마을에서 가까운 쿠시나가르를 먼저 도보로 순례했다. 이 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접하고 발심한 그는 네팔 룸비니 등도 순례했다. 순례하며 그는 의사가 되기를 발원했고 이후 의학공부를 열심히 하여 꿈을 이뤘다. 의사로서 더 많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불가촉천민인 고향주민들을 돌보기 위해 내려와 진료소를 차렸다. 20년간의 삶을 지켜본 아들 하르 세라지 고톰(20) 씨도 아버지의 뜻을 좇아 현재 델리대에서 의학을 배우고 있다. 이날은 아내와 14살 된 둘째 아들 원스 라지 고톰과 함께 환영 나왔다.

마누스 쿠마르 씨는 “개종 전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평등을 설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좇아 불교를 믿게 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며 “불자로서 한국에서 순례단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꼭 우리집에 모셔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누스 쿠마르 씨를 비롯한 인도 불교소사이어티(The Buddhist Society of INDIA) 회원들은 우리네 카카오톡과 같은 와츠앱을 통하여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인도 현지 신문부터 각종 매체 소식을 서로 전하고, 순례단의 위치도 소통한다. 이에 따라 데바루아 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주민들까지 3일 전 이 권역으로 순례단이 행선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3월 16일 숙영지 위치도 확인했다. 꽃 등 공양물을 사느라 늦어 이날 저녁예불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순례단의 도착시간을 계산하여 다시 새벽 3시에 모였다.

인도불자들의 환호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신 쉬라바스티로 향하는 인도순례단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3월 18일 38일차 행선으로 싯다르트 나가르의 지기나마피에서 발람푸르의 타루와까지 25km를 행선했다. 지금까지 순례단이 이동한 거리는 939km, 차량 이동 거리를 제하고도 900여 km를 걸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를 행선한 순례단에게 남은 것은 불교 중흥에 대한 간절한 원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불자들의 응원은 순례단을 힘나게 했다.

순례단을 맞은 인도불자들은 새벽부터 부처님 가피를 외치며 순례단을 기분 좋게 했다. 순례단의 시작은 어김없이 새벽 2시 도량석과 종송으로 시작됐다. 행선을 이어간 순례단은 새벽 4시 하리발단푸르에서 인도불자들의 응원을 접했다. 새벽 2시부터 기다린 마을사람들은 순례단이 당도하자 ‘바그봔 부다 키 카루나 호!’ (Bhagavan Budh ki karuna ho)를 연호했다.

‘바그봔’ (Bhagavan)은 여래십호(如來十號) 중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이라는 ‘세존(世尊)’ 의 인도말이다. ‘보드’ (Budh)는 ‘붓다’, ‘키’ (ki)는 ‘~의’ ‘~에서’, ‘카루나’ (karuna)는 ‘자비(慈悲)’ 의 ‘비’ (悲), ‘호’ (ho)는 ‘~다’ 등 어미다. 쉽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셨다’ 로 풀이된다.

인도불자들은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바그봔 부다 키’ (세존 부처님께서)를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카루나 호’ (가피를 주셨다)라고 화답한다.

순례단을 응원 나온 이들은 소식을 들어 순례단이 먼 거리를 걸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함께 합송하는 ‘카르나 호’ 가 마치 응원 구호 같이 들린다. 순례 초반부에 만난 인도불자들은 ‘나모 붓다야’ 라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다면 순례 후반부에서는 ‘카루나 호’ 를 합송하며 순례단이 힘을 내게 했다.

이러한 응원을 바탕으로 순례단은 3월 20일 쉬라바스티에 도착했다. 천불화현탑을 참배하고, 기원정사에서 도보 정진을 회향한 사부대중은 ‘전법의 길’ 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사부대중은 회향 발원문에서 “오늘 상월결사 인도순례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세상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며 중생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겠다”면서 “우리의 수행과 신행으로 불교중흥을 성취하고 불법을 만난 인연, 모든 생명을 축원하여 보답할 것이며 사부대중이 함께 전법의 길을 힘차게 나서겠다”고 서원했다.

순례단 사부대중은 법회 후 조계종 다례재 및 순례단 인연영가 천도재로 정진을 마무리했다. 특히 천도재에서는 금강경을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합송하며 전법에 마음을 모았다. 인도정부는 인도순례단을 환송하며 부처님성지 공항 및 대학건설 등을 약속했다.

인도에서 돌아오는 길, 순례단 뒤로는 찬란한 무지개가 피었다. 그리고 마침내 3월 23일 조계사에 당도하여 인도에서 발견한 불교중흥의 희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법의 길을 나섰다. 한국의 불자들은 순례단이 가슴에 안고 부처님 성지를 모두 돈 ‘상월부처님’ 을 통하여 그 원력을 접할 수 있다. 구법승들이 성보를 한국에 모셔왔듯, ‘상월부처님’ 은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불교중흥 원력을 담은 상징이다. 또한 생활 속 실천 강령인 108원력문을 통해서도 상월결사의 의지를 접할 수 있다. 〈끝〉